朝鮮日報

社說

國恥記念日

一

國家興亡은 運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 그렇나 運이란 것이 人力으로 할 수 없는 事實을 意味하는 것이라면 이를 否定할 만한 事實은 全世界歷史上에 얼마든지 있는 것이다 이제 我國國史에서 이를 살펴보자 高句麗의 滅亡은 蓋蘇文의 死後에 其子男生、男建兄弟의 國權爭奪戰에 起因했음은 누가 否定하며 百濟의 衰亡이 義慈王의 逸樂에 關係가 없다고 누가 證明하랴 麗朝에 들어서며 契丹蒙古의 不絶한 侵略을 그들의 强大에만 돌려야 할 것이며 疆土의 一部를 劫取하야 蒙古에 投降한 叛逆者가 三次나 있었으니 이것도 運이라 解釋해야 했는가 宣祖壬辰에 日本의 侵寇로 받은 慘禍는 막을 수 있었음이 當然하다 할 것이다 地理的事情으로 보아 當時에 그들의 侵犯을 容許했다는 것은 너무도 우리의 無力을 말하는 것이며 仁祖丙子의 屈辱은 淸軍의 强力을 云謂함보다는 未開한 그들이 滿洲에서 興起했다는 같은 條件으로 우리도 大陸進出의 可能性이 있었다는 것을 알어야 할 것이다.

二

八·二九國恥의 直接原因은 무엇인가? 이 亦是 우리의 近代史가 說明할 것이라 四色黨爭에서 발단되는 폐다가 垂簾政治에 따르는 戚族世道로 政治의 腐敗가 그 極에 達하야 國力이 衰微해졌음은 말할 것도 없으며 大院君의 鎖國主義로 進取開化의 機會를 잃었음도 勿論이다 그렇다 黎明의 曙光이 보이기 시작하든 壬午甲申政變以後 甲午까지 十餘年間에 維新更張의 室과 戚族으로부터 事大機會는 얼마든지 있었다 親日、親露、親美英의 各든 것이다 또한 甲午以後 色政客과 儒學者京鄕班 甲辰까지 十年間에 微妙한 國際關係上에서도 形勢를 挽回할 可能性이 없지도 않았다 그렇나 이 重要한 二十餘年間을 骨肉相爭의 醜惡한 演劇을 되풀이하고 事大依他의 迷夢으로 僥倖만 바라고 個人의 利慾榮達만을 꿈꾸는 자들로 지내보내었다 그 罪責을 져야 할 것이다.

三

今日 先人의 罪過만을 論하려는 것이 本意가 아니다 過去를 龜鑑삼아 前轍을 밟지 말자는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現在를 冷靜히 認識해야 한다 우리는 지금도 亡國史의 再發을 增加케 하고 만일이다 있는 中임을 깨달어야 할 줄이다 서로 싸운다고 하면 殿今事業에 居處가 天兩으로 바꾸어 생각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들이며 孫子九地編에 「吳人與越人相惡也 當其同舟而濟 遇風其相救也如左右手」라는 말이 있다 仇敵間이라도 같이 危急한 境遇를 當하면 서로 救한다는 意味다 우리 同胞間에 吳越에 比할 仇讐가 있을 理 없고 假令 있다고 하드라도 相救해야 할 때임을 깊이 깨달어야 할 것이다 風浪을 만난 船客이 우리들이다 家屋을 세워야 凍死를 免할 것이며 한時라도 빨리 安全한 곳으로 航行해야 永魂을 發할 것이다 家屋의 形式을 따루기에 時日을 보낼 때가 아니오 훌륭한 構築을 求하기에만 勢力을 費할 수가 없다 一心全力으로 木材와 土石을 모으고 蓋瓦와 窓戶를 準備해야 한다 幾千百의 棟梁만으로는 家屋이 될 수 없음이 分明하다 우리는 過誤를 다시 되풀이하지 말고 八·二九와 같은 國恥記念日이 우리 歷史上에 다시 생기지 않도록 同胞들은 다같이 盟誓하자.

熱河省에 國共戰開始
中共의 大同攻擊은 斷念

【北平廿八日發 AP合同】 一部報道에 依하면 中央軍은 熱河省承德、隆化、赤峰三都市에 對하야 進擊을 開始하였음으로 南方地區의 戰雲은 드디어 危急을 告하고 있다 한편 山西省大同에서는 中共軍包圍의 中央軍이 廿日間이나 中共軍과 交戰하야 이를 擊退하였다 한다 또 一部中立側觀測에 依하면 熱河省에서는 全面的戰鬪가 展開되리라고 보고 있다

當地新聞報道에 依하면 中共側은 大同包圍를 斷念하였는데 이것은 中央側의 華北張家江延安攻擊에 對한 對策을 講究하기 爲함이라 한다 現在中共軍은 徐州에서 防禦態勢를 取하고 있으며 中央通訊報道에 依하면 中央側은 現在까지 攻擊에 있어서 아무런 成果도 보지 못하고 있다 한다

大同包圍斷念
中共徐州에서 防禦

【上海 廿八日發 AP】

民生問題對策協議會
民議主催로 三十一日開會

民主議院에서는 지난 二十六日 民生問題對策協議會(假稱)實行委員의 名義로 社會各層各界代表百餘名에게 招請狀을 發送하였는데 오는 三十一日午後二時 昌德宮仁政殿西向閣에서 以上諸氏가 會合하야 現下急務에서 呻吟하고 있는 民族의 生活問題를 打開하기 爲하야 그 具體的方案을 協議하기로 되었다 한다

民衆黨聲明書

民衆黨總本部에서는 莫府三相會議協定에 依한 朝鮮獨立은 期待할 수 없으므로 民族自決原則에 基하야 우리의 數意로써 臨時政府와 民生問題를 解決하자고 二十八日左記聲明書를 發表하였다

一、軍政의 行政權을 韓人에게로 移讓하라

二、政府樹立은 國民投票로 決定하자

三、民生의 根本問題인 食糧對策과 「인푸레」防止策은 民意에 따라서 解決하자

四、獨立運動不合作資本家地主를 打倒하고 謀利輩를 根絶하자

五、三八線撤廢는 美蘇駐屯軍에게만 適用하고 韓人은 自由行動을 取하게 하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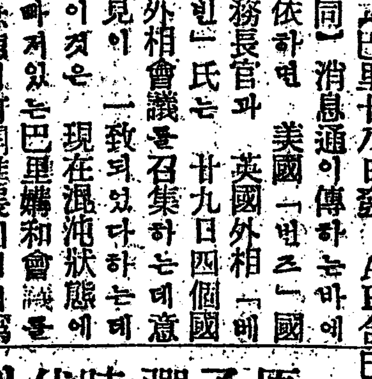
黨內熱誠者同志諸君에게 告하노라 ②
姜進

(前日에 繼續) 넷재 그들은 늘 分派會議를 하고 있었다는 것은 政治局會議도 없이 今般新戰術決定時에 政治局에나 組織局의 會議없이 所謂各部責任者會議라는 이름으로 其實은 그들一派會合에서 決定指示하였다 이러한 現象은 決코 中央派의 影響이 미치는 곳에는 반다시 이런 種類의 事實이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그로든 것은 大會에서 綜合的으로 報告하기로 하자 그리고 五日附聲明에 우리들이 特히 指摘한 李舟河 李鉉相 金三龍 三同志에 對하야는 特別히 同志諸君에게 報告할 義務를 느끼다 同志李舟河는 八·一五後에 그의 故鄕인 元山으로 돌아와서(八·一五前 그동무는 運動을 休息하고 있었다) 그의 親戚知己와 墮落分子等을 網羅하야 元山運動의 指導部를 構成하면서 오래동안 地方運動을 非合法的으로 實地로 指導示하고 實行하였다 政治를 通하지 않은 局組織局決定없이 또는 中央委員會이름으로 나오는 同志를 모다 運動線上에서 排除하였다 뿐만 아니라 報告도 없이 심지어 否決한 有能한 同志二人을 自己가 된것까지 얼마든지 同志에 反對한다고 하야 二李舟河의 恣意에 依하야 監禁하였던 것이다 決定實行된 것은 指示文書等은 없었다 同志金三龍에 次나 한 方法으로 八·一年四月十一日附 解放日報紙上에 發表된 「볼쉐비키化를 爲하야」라는 論文에는 元山運動에 莫大한 害毒을 주었든 李同志는 五後 元山運動에 莫大한 報紙上에 發表된 單純하 本來 그를 크렘中 舟河同志署名의 論文에 다 同志들은 이 理由로 그들의 對하야는 明白하게 政治 自意에서 第二秘書로 登 組織局連席會에서 否決된 局의 事實上의 獨裁者로 室々히 發表하고 마랏든 것 登任하였다 書記局을 同 이다 事實에 있어서 同志李 志朴憲永、李舟河로 構 舟河그 個人이나 그것이 成하야 政治局組織局以 크렘은 그들의 政治局 上의 權限을 가지고 同志 이였고 組織局이였고 書 李舟河가 完全히 獨裁하 記局이였고 中央委員會 로든 것을 決定하고 指 였든 것이다 ...

그러나 中央市統制委員會를 構成하여 한다면서 中央委員會에 나오는 中央統制委員會에 報告되어 決定하려는 것은 恣意的으로 決定 … 그들의 眼前에는 우리運動의 歷史 … 同志에 對한 人間的 蔑視 … 不信誹謗中傷等唾棄할 空氣를 黨內에 퍼뜨리고 있다 … 三、黨中黨을 形式的 配置를 宗派 … 이러한 革命 … 自派의 强化를 爲하야 過去불어 鬪爭불은 그들은 自派를 强化하며 可能한 것이다 그 飛躍的發展이 … 黨勢를 阻害하게 하였다.(繼續)

苦難의 記憶을 想起
民族統一本部談話

우리는 苦難의 記憶을 想起하므로써 民族團結의 必要性을 再認識시켜 今日朝鮮에 存在하는 類似一進會의 正體를 暴露하고 그의 存在를 粉碎하므로써 이날의 意義를 찾어야 할 것이다 庚戌八月二十九日은 우리 民族千秋의 恥辱을 齎來한 날이다 祖國과 民族을 팔아서 他國에 屬邦이 되기를 企圖한 逆賊團體가 賊徒輩一進會이다 八·二九國恥記念에 全愛國者와 愛國團體가 總動員하여 一進會의 罪惡을 民族이 行할 것이다



合黨當分保留?
人民黨擴委에서 意見一致
呂黨首辭表撤回될 듯

民主陣營力量統一强化를 目的으로 人民黨으로부터 共産黨과 新民黨에 合黨을 提案한지 오래나 意見의 進展을 보지 못하고 自黨內部의 方法問題로 呂黨首의 辭任問題까지 擡頭하게 된 人民黨에서는 自黨內部의 根本問題인 合黨問題와 黨首辭任問題를 議題로 政界總注視裡에 第三次擴大委員會를 二十七日下午二時半부터 呂運亨黨首를 爲始한 百餘委員과 地方代表多數參席裡에 開會되어 呂黨首를 議長으로 選定하고 第一次「擴委」의 經過報告가 있어 討議事項으로 들어가 黨首辭任問題를 上程하고 李萬珪氏로부터 黨首의 辭表를 朗讀하자 呂黨首로부터 黨內意見對立狀況을 指摘하고 自己가 辭任을 決意하기까지의 理由를 說明하였는데 이로부터 白熱的論爭이 展開되어 中央執行委員全部의 引責辭任의 意見이 提議되었으나 甲論乙駁으로 會議는 疲勞하야 下午五時半 退場하였음으로 李萬珪氏를 議長으로 會議를 繼續하야 一段散會하였었다 그리고 二十八日에는 正刻이 지나도록 黨首를 비롯하야 重要幹部들이 不參으로 開會를 中止하고 있다가 下午二時頃에 再開하야 黨首辭表撤回를 中心으로 討議하는 中 張副委員長도 同六時半辭表를 提出하고 退場하였는데 이에 이어 書記局長李萬珪同次長趙漢用 政治局長李如星 事務局長李林洙等諸氏도 黨首와 行動을 같이하겠다고 하여 辭意를 表明하였는데 이 때문에 會議는 더욱 緊張되어 아모런 成果를 보지 못한채 下午八時頃에 閉會되었다 이 會議에 있어서 黨首의 辭表는 結局撤回될 것이 豫想되는데 合黨問題는 當分保留하는 것으로 意見一致를 보았다 한다 그대로 再開하여 二十八日上午十一時부터 再開된다

蘇、東歐와 滿洲支配
反蘇分子는 强制收容
후一버氏 蘇聯攻擊

【산마리노 廿八日發 AP合同】 前美大統領 「후一버」氏는 新聞記者會見席上에서 蘇聯은 平和에 對한 工作과 進步를 妨害하고 있다고 다음과 같은 反蘇見解를 披瀝하였다 蘇聯은 「말타」海로부터 「발칸」地區를 貫通하야 東歐와 또 滿洲地區를 完全한 共産黨支配地區로 만들려는데 必要한 時間을 얻고저 努力中이며 此等諸國家內에서 蘇聯政策을 反對하는 分子는 排斥하고 强制收容所를 設置하고 있는데 한편 多數에

四相會議召集
美英間意見一致

【巴里廿八日發 AP合同】 消息通이 傳하는 바에 依하면 美國「번즈」國務長官과 英國「베빈」外相은 廿九日四個國外相會議를 召集하는데 意見이 一致되었다 하는데 이것은 現在混沌狀態에 빠져있는 巴里媾和會議를 急速히 打開進展시키기 爲한 講究策이라 한다 그런데 「베빈」氏는 廿八日 巴里에 歸還하리라 한다

溥儀는 다시 西伯利亞로

【東京廿八日發 AP合同】 日本戰犯者裁判所首席檢事「조제푸·키-난」氏發表에 依하면 前滿洲傀儡政府皇帝溥儀는 八日間의 證言을 完了한 後 八月三十日 空路「시베리아」로 送還되리라 하는데 이것은 溥儀를 俘虜로 看做하는 蘇聯側要求에 依한 것이라 한다

山西中共地區
宣敎師를 逐放

【上海廿八日發 AP合同】 上海「카토릭」敎會長「로메따·미카이아」神父는 記者團會見席上에서 「中共側은 그 勢力地인 山西省으로부터 自己系統의 「카트릭」宣敎師를 逐放하고 財産을 押收하였다」고 非難하였다 山西省으로부터 逐放當한 最後의 宣敎團은 危險한 境遇를 突破하야 最近北平에 到着하였다 山西省朔縣에서 押收當한 敎會財産은 約十二萬五千弗에 達한다

滿洲에 徵兵制
中央側實施說

【天津廿七日發 AP合同】 益世報報道에 依하면 中央政府는 滿洲地區에 徵兵制를 實施하였는데 萬一 이를 回避하는 者가 있다면 嚴罰에 處한다 한다.

日議會會期延期
【東京二十七日發共立】

日本議會는 新憲法案等의 審議를 考慮하여 二十八日로 會期가 滿了되는 今會期를 다시 二十五日間延長하야 九月二十二日을 本會期終了日로 할 것을 內定하였다

中國民主同盟
國民大會不參

【上海廿七日發 AP合同】 民主同盟代辯人은 新聞記者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中央側은 中國憲法을 制定하기 爲하야 十一月十二日에 國民大會를 召集할 計畫中이라 하나 民主同盟側은 이에 參加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國共이 即時停戰과 中國의 和平統一은 平和的方法으로 到達될 것을 力說하는 바이다.

原子彈時代엔 潛水艦이 最適

【華盛頓二十八日UP發朝通】 前亞細亞艦隊司令官이며 現上院議員인 「트-마스·C·하-트」氏는 二十七日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原子彈時代의 海軍에 있어서는 原子爆彈을 裝置한 無線으로 操縱되는 潛水艦만이 唯一한 軍艦이 될 것이다 將來는 航海는 潛水艦에만 依할 것이며 따라서 潛水艦은 艦隊에 있어서 가장 重要한 軍艦이 될 것이다 太平洋에 있어서 潛水艦은 가장 重要한 軍艦이 될 것이다」

日人農地四三萬町步
朝鮮農會調査(一九四〇年現在)

解放前日本人所有農地에 關하야 最近朝鮮農會에서 一九四〇年現在調査發表한 바에 依하면 三八以南에는 三十三萬四千三百七十町步 三八以北에는 十萬二百四十五町步 合計四十三萬四千六百十五町步로서 이를 當時全國總耕作面積四百四十九町步에 比하면 一割程度에 不過하다

濟州警察廳長
金大奉氏任命

濟州島의 道昇格에 따라 第八管區에서 獨立하야 警察廳이 設置되었는데 初代廳長에는 金大奉氏가 廿七日發令되었다

人事消息

▲金度演氏(韓國貿易協會々長) ▲李活氏(同常務理事) 人事次來社

八面鋒

◇…오늘은 國恥記念日이다 우리는 解放以後 數많은 記念을 했다 오는 國恥記念日을 當하여 다시 한번 웨치고 싶은 것은 國恥를 겨듭치 말자는 것이다

◇…解放되자 말자 다시 남의 종노릇하자는 徒輩가 생기었다 四十年동안 지긋지긋한 종노릇하자니 朝鮮사람은 永久히 奴隸族屬이란 말이냐 政治的이던 經濟的이던間에 植民地가 되는 것은 三千萬이 拒否한다

◇…三千萬이 拒否하는 것을 第二第三李完用이 작난을 하니 이 같은 民族叛逆者、滅族亡國者는 斷乎處罰을 해야 한다 運命論은 弱者의 逃避場에서나 할 소리다

◇…生死岐路에 선 지금 우리는 모든 內賊과 싸워야 한다 一步를 그릇치면 千秋의 怨恨을 사리라.

想起하라·37年前이날

오늘國恥日·悔過自責도이때

오늘……八월二十九일은 깨끗한 우리 한반만년역사에 전무후무한 씨못할 크나큰욕을 하게된 국치의 날이다. 지금으로부터 三十七년전 경술년(庚戌年)이란 이날 우리국가는 三천리 강토는 저 섬나라 일본제국에 삼킨바되였고 三천만 한겨레는 一조一석에 누꺼이 바위에 섬오랑캐에게 무참사리들 하지않으면 않되게되였다. 이날부터 우리의 강토는물론, 우리의 말과 글은 빼았겼고 력사와 문화까지 모조리 짓밟힘을 받어 눈은 장님 말하는 벙어리, 뜻는 귀먹어리에 명리한바보가되고 말았든 것이다. 이러하기를 三반세기이상 이땅에서 「삶」을함께받고있는 풀과나무까지도 모두눈물에 저저 이강토가 주인을 찾을날이 하로밧비 오다오기를바랐오리라. 그러든중 어찌뜻하였오랴! 단기(檀紀)四천二백七十八년八월十五일 우리는 천운이 열리여 꿈인양 해방이되였다 그리하야 三十七년간 굴속에 유폐되였든우리는 밝은천지를 다시보게된것이다. 이 장산에는 요운(妖雲)이 거치고 세빛이 찾어온것이다. 그러나 지각이들난 우리는 지나간 경술년의 치욕과 三十七년 동안 왜적에게 받은 섬저리나는 온갖욕을 도리켜 생각하야 스사로이고 황연히 깨다름이 없어서는 안될것이다. 서로를 망파를 짓고 편색을 가다여 건국을 이땅닷 지지하게 이 그르고만 있게않은가? 이얼마나 애꾸진 三천만겨레에 짓는 몇몇빛나가는 정치지도자들의 죄악이냐! 우리는 거듭웨친다. 오늘은 八월二十九일 원나라 원겨레가 왜적에게 부그러운 욕을 당하든 날일다. 이날을 거울삼어 우리는 지나간날의 치욕을 되푸리 않도록 三천만이 다각각 뉘우처 깨다러야 할것이다. 그리고 「설치는 국민에 서」라는 큰가사말 앞에도 꽁여 몽처야 할것이다 오늘 국치일을 닛저말라!

이게 없어저서 고수연구서 교수당 [illegible] 의자격중명과한정서약서 를제출하라는것은 교수의인격을 무시하는것이며, 학계간의 분열을기도한다는의미의 조무을 원기한다. 이안에 찬성할수없다하고 말대하고 있다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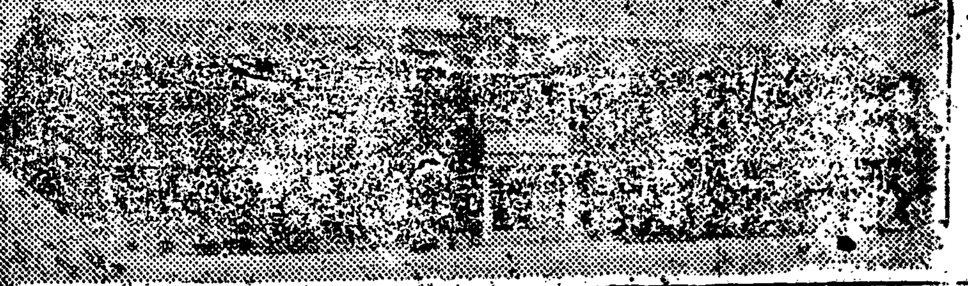
倭色一掃에

韓國青年會 三百名動員

경성제대 부속병원(京城帝附屬病院)은 소멸됨 우리가있고 학생수에대한 교수의수가 국치일을 당하야 한국청년회(韓國青年會)에서는 서울시내각처에남아있는 「일본저재제」를일소시키고저 회원三백여명을동원시켜 일본말로된간판을없이하는동시에 서점에서 일본황도정신(皇道精神)에 관한서적을 없이하고 판자촉으로 하는뜻에서 가무는중지 하고 음식점은휴업하도록 활동을개시한바이다

知事會議續開

지난二十七일부터 군정청 제一회의실에서 열리든 도지사회의는 二十九일까지 계속되리라는데 남조선 각도지사 하곡수집과주곡수집계획 「하-지」중장 「러취」군정장관도 참석하야



貿易許可申請 二五一通整理中

상무부 무역국에서는 八월二十二일까지 접수한 허가신청서는二五一통에달하는데 이를 정리하고 있는중이라는 바 이를 도별로보면 서류접수우二十일이 ▲京畿道二三三通▲江原道六通▲全羅南道▲全羅北道各四通▲慶尙南道▲慶尙北道一通이라고한다

隆運열린『崇文中學校』

東方文化學院에서引繼經營

서울금호정(金湖町)에있는 경성실천상업학교(京城實踐商業學校)는 해방전에일인으로부터 기부받은 일천만원이 재단으로되어 경영되었는데 기부받은일천만원이 국가에 귀속되어 교장은 서규원(徐圭元)씨 (시천은신발족하는중문중학교) 가 되었다 二十八일군정학교로 승급되어 숭문중학교(崇文中學校)로 고치어 상업학교도 되었던 것이 앞으로 그학교운영은 동방문화학원(東方文化學院)에서 말어보기로 되어있다한다

日氣豫報

北西風이불다 北東風 大體로개이다 흐리겠다 — 攝氏二十七度六分

統一은우리먼저

韓國航空建設協會새發足

다섯개의 항공(航空)단체가 각기분파적으로 활동하여 오든중 전중경으로부터 귀국한 최용덕(崔用德)장군과 이영무(李英茂)씨등을 항공조선 창건에 힘쓰가 합작에 대한준비위원회 파견이 결정하였다。
▲會長 崔用德▲副會長 李英茂▲總務部長 金東業▲經理部長 金鍊器▲教育部長 李英茂▲技術部長 裵明鎬▲研究部長 崔用德▲宣傳部長 李致浩▲事業部長 李繼燦▲秘書處長 徐鉉圭

要人暗殺·治安攪亂에

北朝鮮서十一名潛入

八名逮捕·武器와軍資金도押收

제일경찰청장 장택상(張澤相)씨는 二십八일 출입기자단과회견하고 앞서북조선으로부터 인암살파및 「푸랭치대」(攪亂隊)원十一명이 남조선에잠입하야 목적달성에 활약중지난二십六일 미연에발각체포된 사실을 발표하였는데 그윤곽은다음과같다

「암살푸랭치대」원중 平壤保安局特察課長 김광빈(金光斌)의특명 한성(韓誠)이 김광빈(金光斌)의 명을받아 (?)이 하야 평양보안국특 청 경무부장 조병옥(趙炳玉)경기도제一관구경찰청장장택상(張澤相)김성수(金性洙)장덕수(張德秀)이승만(李承晩)박헌영 김구(金九)등 六씨를 八월三십일까지에 암살하는동시 좌익사상으로 「푸랭치」공작을 꾀하야 미군정의반동을 목적으로 지난六월二십四일과 八월二십四일 두차례나 상경하였다 그동안이종섭(李鍾燮) 좌익사상을고취하고 「푸랭치」는 정치청년회(咸北青年會)에 가담 이동건(李東健)(二一)은 평안청년회(平安青年會)에김봉규(金奉圭)(二二)는 학생단체에 각각 잠입하여 청년회 단결을 제정 합부하고 연락망으로 허철갑(許哲甲)(三三)천호(金天虎)(三三)는 무기입수공작에활약하고 있는 동시 자외三차나 연락하여 정보수집과 「푸랭치」(二五)은 최한(崔漢)(二三)과 협력하야 주현(李元熙)(二六)는 주모자로서 기회를 노리고 있었든것이다 이리하여 보운교 이원(李元熙)의 三명은 암살실행으로 면밀한 조직과 정보망 [illegible]

女性擁護의總本營

軍政廳內에 婦女局設置

미국적 부녀국(婦女局)을 설치하였다 국장에는 「헬렌·닉슨」 여사가 취임할예정이며 그 국장에는 조선에있어서도 부녀자의 사회경제정치 문화등 각방면에결친 이부녀국은 최초의 목적 완전하고 충분한 실현에관한 인무를 담당할터인데 이것은 한국의 부녀에 관한 그기능과직무는 군정청에서 여기에는 전국적으로 유명한 조선공녀 지도자가 법령제一〇七호로 보건후생부의 일 [illegible]

一、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문화적 각방면에 있어서 조선부녀의 지위개선에 대한 정책에 관하야 군정장관에게 의하고

二、일반부녀후생과생활에 관한 연구자료를 계속적으로 편찬발행하며

三、조선부녀의 후생과 이익의 증진에 관한 기관과 각정책을 세워 적당한 각정차단체관공서와 군정청각기관에 추천할것 등세가지로 되어있다 이외에도

(가) 부녀노동상태개량

(나) 직업여성에 대한 승진기회의 촉진공이다

(다) 공업 농업 고용자로서의 부녀와 가정에 있어서의 부녀에 대한 보호

(라) 부녀의 관청직 후생자업 에 대한 보호

(마) 부녀의건강 표함에 있어서의 활동 부녀자가

(바) 부녀의 정치권리에 대한 정당한 지위를

(사) 부녀참정권 의 분만에 한주의

(아) 부녀법제와 그 유곽관리와철폐 직접표현하게할 것이다

(자) 부녀와 아동여

『雪辱의意氣도드높게』

서울運動場에서國民大會

八、二九국치기념국민대회에서는 二十九일오전十시부터 서울운동장에서 국치의 「설욕은자주독립뿐이다」라는 기세를 드높게 성대히 거행하기로되였다 이대회의 식순은 다음과같다

大會順序 一、開會 一、愛國歌奉唱 一、殉國烈士에對한 默禱 一、開會辭 一、國恥記念辭 一、決議文案 (가) 決議文原案 (나) 聯合國에보내는 (다) 巴里平和會議에보내는 「옛세」 一、口號 一、市街行進에 對한注意事項 一、閉會辭 一、萬歲三唱 一、閉會

서울大學案

醫學部學生反對

「서울대학안」은 二十二일부로 법령一〇二호가 二十七일공보부를통하야 발표되였는데 이에 서울대학의학부 학생은 반대의태도를 표명하고 있다는데 「지」「지」 국민총동원 대한 한성 김우용 학생들이 「옛세」의 전부 학생을 이끌고 있다는데 二十八일 오후 등 의학부학생들은 결의하고 대학본부에 「대학안 철폐」를 요구하였다한다 즉 학생대표 十一명은 전부 경의전부속 북조선인민위원회 의학부장(總長) 제출하였다 결과 (북조선인민위원회) [illegible]

法廷을劇場視

尹學起辯護士의佞言

정판사 위조지폐사건 제二회 공판은 二十八일 제四일로 오전열 시부터 개정하였다 공판 제四일의 심리가 진행되는 도중 피고정명환(鄭明煥)은 발언이 있었으나 재판장은 재판장으로부터 윤학기(尹學起)변호사는 「법정은 연극이 아니라」 「암살의 피고는 진술이 없다」이처럼 「답당변호인」은 제가 계속 진술하고 있는데 「변호인의 진술을 들어라」 하며 재판장의 허가도 받지않고 함부로 발언하며 재판을 방해하고 「이 재판은 연극이다」라고 말하자 재판장은 「이 재판은 공정한 재판이다」 재판을 진행하는 것은 윤학기변호사를 비롯하여 재판장의 심리를 방해할수가없으며 변호인의 자격이없다고 재판장은 이에 반박하야 「변호인은 모욕하였으나 재판장은 피고인의 발언을 기각한 것이다」고 말하자 「이 재판은 죄형법정주의에 의한 재판이다」하고 진행하는데 변호인측은 연극에서보는 재판과같다고 하였다 그후 四十분에 휴정을 선언하고 三十일오전열시부터 계속하기로 되었다

徹底懲戒處分

梁元一裁判長談

윤변호사는 이에 증거를 분열하였다 이와같이 법정을 모욕하여 재판장의 재판에 불복하여 형법제二백三조평에 해당하는 것으로 포고제二호에 의하여 처벌을 받게된것이다 반변호사의 법관모욕의 언사는 자신의 법권에 대하여 한것이다

婦女朝鮮의意氣軒昂

壯觀이룰解放女性體育祭典

해방후 처음으로 우리 조선여성의 의기를 보여줄 해방여성 체육제전(解放女性體育祭典)은 二十九일 三十일 이틀동안 서울운동장에서 열게되었는데 국치일(國恥日)로 하로 뜻있는 모임이라한다 三十一일 이틀동안 오전九시부터 여성의 용기를 총발휘할 예정 대로 그운동장에 당일참가할 정부인을 비롯한 각 여성단체 여성들이며 여성은 후처음보는 조선여성의 모임이라한다

公判續報 偽幣事件

다음올림픽은여기서

九月一日國民體育場起工式

조선국민체육장(朝鮮國民體育場) 건설준비회에서는 三백만원 기공식을 거행하기로 되었다 九월一일 오전十시부터 서울교외 우이동(牛耳洞)에서 거행하기로 되었다 또한 조선건민회(朝鮮健民會)의 이취지에 찬동하야 五백여 회원이 종합운동장을 건설코저 그를 후원하여 근로봉사를 하기로 되었다 九월이 문바 九차를 한다

体育

自轉車都市對抗

朝鮮自轉車聯盟主催로 第一回全國自轉車都市對抗競技大會를 오는九월十四、十五日兩日間 京城運動場에서 열린다는바 參加資格은 朝鮮自轉車聯盟 各道聯盟의推薦한 府、邑에所在登錄競技者에限하며 競技種目은 競走車競技 △五百米△千米△三千米△五千米△一萬米△四千米團體追拔競技 但四千米團體追拔競技는 二千米로함

(木曜) 二十九日 陰七月三日 干支 乙亥
△日出 午前六時〇分
△日入 午後七時八分
△月出 午前八時六分
△月入 午後八時三分

【晝】△一一·三〇 男女運轉短期教授 日用品時事(서울) △一一·四五 家庭時間 金鍾禧博士 【夜】△五·〇〇 △五·三〇 △七·〇〇 國恥日을當하야 孫夫人△國恥日은무 韓誠 時報 △七· 「國恥日을맛이시라 韓芝麗△七·一五 講演 李承晩 △八·〇〇 民主主義時間 △八·三〇 放送劇 金永壽作 史話「韓末痛史」尹白南

急求 五千圓 特利 責任 分商品 各道別로人員을 募集하오니 有意者는 各一名 京畿道二名 江原道三名 慶尙南北道各三名 忠淸南北道各二名 全羅南北道各三名 京城府黃金町四丁目 藥業厚生社

男女運轉短期教授 特別勤務人研究生有日 曜日實地練習 京城下往十里派出所前 朝鮮第一自動車學校

料材計時 都賣는 三五堂 군정청西側四街東 서울市通義町一四七

外科·產婦人科 醫學博士 金泳植 信愛醫院 內科·小兒科 院長 洪淳昌 黃金町五丁目一九 (電東675)

學校用品·教材教具·運動具 事務用品·參考圖書 京城學用品商會 京城府黃金町四丁目二八九 電話本局②二五二六 振替京城二八九五

商報進呈 最高級純植物性 光明포마드 光明齒磨粉 商品의眞價는一次試用하시면알수있읍니다

高級化粧品·洋品·諸雜貨 商報無代進呈 在庫豐富 여러분이期待하든 三星物產商報出現!! 業者로請求하시면即送하겠읍니다 部數에制限이有하여先着順發送 三星物產商社 京城府中區本町一丁目三十一番地 電話本局②二一八三一番 振替京城一八三〇一番 取引銀行 朝鮮銀行本店 私書函 朝興銀行本町支店